

『人文科學』 제120집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글쓰기 강좌의
원격화상수업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
- 2020학년도 1학기 홍익대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강좌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영*

I. 서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1학기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원격강의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많은 대학에서 1학년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글쓰기 강좌의 원격화상수업화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0학년도 1학기에 홍익대(이하 H대로 표기) 글쓰기 강좌를 원격화상강의로 수강한 학생들과 이를 실행한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H대의 글쓰기 강좌는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3학점 4시수, 1학년 교양필수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2시간 주 2회 수업의 이 강좌는 30명

*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정원으로 분반이 구성된다. 이론과 실습을 겸한 이 강좌는 학생들이 대학교정을 원활히 이수하고, 졸업 후 대학원이나 직장이 요구하는 글 양식들을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강좌는 학생들의 독해력과 사고력, 비판력과 창의적인 문제 구성력 및 해결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예컨대, 사고력 증진에 필요한 논증구조의 이해와 독해 연습, 글쓰기를 위한 어문 규정의 이해나 서술의 기법, 글 양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채로운 양식의 글들을 직접 써 보는 작문실습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및 토론 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룰 원격화상수업은 대면교실수업에 대응하는 비대면교육의 하나이다. 현재에는 원격화상강의와 유사한 개념인 컴퓨터 기반 수업, 웹 기반 수업, 이러닝, 원격강의, 온라인(인터넷)강의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은 원격교육(遠隔教育, Distance Education)이다. 시간과 공간을 변인으로 교육을 구분하면 교실대면수업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 반면, 원격교육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의 수업과,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의 수업형태를 포괄한다.¹⁾ 방송통신강의나 인터넷강의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원격화상수업은 후자에 해당한다. 원격교육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 고린도 교회 등 각종 교회에 서신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1세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원격교육은 1840년경 영국에서 우편으로 실시한 속기교육이 그 시작으로 꼽힌다. 이후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영국이 원격교육이란 개념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²⁾ 한편, 한국에서의 원격교육은 대체로 1970년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을 기점으로 잡는다. 방송을 통해 방통대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던 한국의 원격교육은 1980년대 이후 PC가 보급되고 1990년대 중후반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이 구축되었으며, 또 웹 기반 교육, 평생교육이란 개념이 도입되면서 몇몇 대학이나 기

1) 정인성·나일주, 『원격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04, p. 15-16.

2) 인철일, 『원격교육과 사이버 교육 활용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2003, p. 3.

업에서 시도하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수업 정도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다. 사이버대학의 개설이 그 구체적 외현이다.³⁾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까지 한국 대학에서 원격교육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에 갑자기 전면 실시된 한국 대학의 원격교육은 녹화된 강의, 실시간 화상강의, 단순 수업자료 업로드, 과제 제출식 강의 등, 그 양태도 다양하였다.⁴⁾

2020학년도 1학기에 H대가 실시한 원격교육은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실시간 화상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보강용 수업은 녹화 영상을 활용하여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강의 형태였다. 글쓰기 강좌의 주 수강자인 대학 신입생들은 인강(인터넷 강의)세대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단방향성이 아닌, 쌍방향성의 원격화상강의는 낯설어 했다. 더욱이 인강세대도 아닌 교강사들은 난생 처음 실행하는 원격화상강의에 초반에는 많은 고충을 호소했다. 종이교과서가 디지털콘텐츠로 바뀌고, 클릭 한 번으로 글로벌한 데이터 보유체인 인터넷에 항상 접속이 가능한 수업환경이 구현되었으며,⁵⁾ 지방 학생들은 비싼 주거비를 지불해야 하는 서울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카페나 집 등 어디서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기반한 원격화상수업은 기실 모두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것일 터였다. 하지만 막상 2020년 코로나19가 열어젖힌 원격교육은 학생, 교강사, 학부모 모두에게 “느닷없이 덮쳐온” 일종의 “폭력적인 미래”였다. 특히 기기를 다루는 것조차 익숙지 않았던 교강사들은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고 운영해야 해서 학기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3) 임철일, 위의 책, p. 93.

4) 강환웅, 「대학 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의신문』, 2020.4.21.,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9103, 2020-9-21-15:35:51.

5) 미하엘 베첸, 「책의 종말과 문자의 전자적 확장」, 『인문과학』 100, 2014, p. 127-128.

6) 김서영, 「코로나 시대, 학교의 재발견(하) : 갑자기 닥친 원격수업, 교육양극화 ‘위기’와 교육개혁 ‘기회」, 『경향신문』, 2020년 7월 2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22113005&code, 2020-07-20-10:53:54.

코로나19 이전에도 일부 대학들은 교수학습센터나 글쓰기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 첨삭교실이나 클리닉 등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글쓰기 지도를 실시해 왔다.⁷⁾ 하지만 정규 학기에 교양필수과목인 글쓰기 강좌를 원격화상강의로 진행한 예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글쓰기 강좌는 온라인수업으로 대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쓸 글의 콘텐츠 확보는 학생 혼자서 자료를 독해하고 생각에 몰두하는 것 보다는, 동일한 텍스트를 함께 읽은 동료들과 교강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이런 상호작용을 거치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자신만의 오피니언을 안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즉, 글쓰기 강좌에서 학생과 교강사, 학생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쓸 글의 콘텐츠 확보에 필수적이며,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도 이런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글쓰기 강좌가 원격화상강의로 실시되면, 대면수업에서보다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된 일이었다.

어쨌든 많은 우려 속에서 전국의 대학들은 2020학년도 1학기를 2주 늦게 Zoom이나 Webex로 개강하였고,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로 2학기도 그러하였다.⁸⁾ 코로나19는 기획해서 하려 해도 거의 불가능한 일을 전국적 단위에서 거의 폭력적인 수준으로 실시하게 만든 만큼, 유용한 데이터들을 많이 남겼다. 이 글은 2020학년도 1학기에 Cisco Webex Meetings로 실시된 H대 원격화상수업을 사례로, 대학 글쓰기 강좌의 원격화상강의화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해 봄으로써, 미래에 대비하고자 한다.

7) 최용환,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첨삭지도」, 『교양교육연구』 7(1), 2013, p. 340.

8) 이는 이미 여름방학 때 예고되었다. 장성환, 「대학가, 2학기에 ‘블렌디드 러닝’ 방식 수업 확산 될까?」,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4690>, 2020-07-20-11:07:21.

II. H대 글쓰기 강좌의 원격화상수업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학생용 설문조사 결과

학생용 설문조사는 2020학년도 1학기에 H대 글쓰기 강좌를 수강한 1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구글 설문지로 진행되었다. 총 8개의 문항 가운데 6개는 선다형, 2개는 서술형이었다. 응답자는 91명으로, 이는 대상 학생 122명 중 장기결석자 4명을 뺀 118명 가운데 약 77%에 해당한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 되어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였다. 여섯 개의 선택지를 주고 복수응답을 허용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시험 대체 과제가 많아짐'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버다운 등 접속 불안정으로 수업이 불안정하게 진행됨'이 40.7%, '토론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음'이 29.7%였다. 기타 '음성이 자주 끊어짐', '교수나 학생들의 플랫폼 조작 미숙'을 선택한 학생도 소수 있었다. 반면 대학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 되어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묻는 두 번째 질문에는 “등하교 시간을 벌 수 있고, 복장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1.2%로 절대적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 됨에 따른 불편함과 좋은 점에 대한 것이었으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글쓰기 수업에 특화된 응답 보다는, 2020학년도 1학기에 대학강의가 온라인화된 사실에 집중된 반응을 주로 보였다. 그만큼 이 사실이 학생들에게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불편함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는 '토론수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음'이라는 글쓰기 강좌와 관련된 항목은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좋은 점을 묻는 두 번째 질문에서는 '대면수업에서 나서기를 꺼려했던 학생도 원격강의에서는 목소리만으로 토론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됨'이 그러했다. 글쓰기 강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학 강좌와 관련된

‘과제물 부담’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시험의 실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강좌들이 시험을 과제로 대체하여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서버다운 등으로 인한 수업의 불안정성’은 원격화상수업을 실시한 초기에 거의 모든 강좌들에서 지적된 문제이다. 또 원격강의 초기에는 카메라를 구비하지 못한 학생도 많았고 마이크가 없어서 이어폰을 대신 사용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이런 학생들이 발언을 하면 소리가 자주 끊기거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빈번했다. 교강사나 학생들이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플랫폼의 조작이 미숙하여 발생하는 수업의 불안정성은 학기가 진행되어 경험이 축적되면서 점차 나아졌다. 그러나 원격화상강의가 초중고로 확대된 2020학년도 1학기 중반 이후에는 비슷한 낮 시간대에 인터넷 접속이 폭주한 탓인지,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다시 잦아지기도 했다.

세 번째 질문은 글쓰기 강좌가 원격강의로 진행되어 수업효과가 떨어진 부분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으로, 글쓰기 강좌에 한정된 질문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이에 87.1%의 학생들은 ‘발표와 토론 수업’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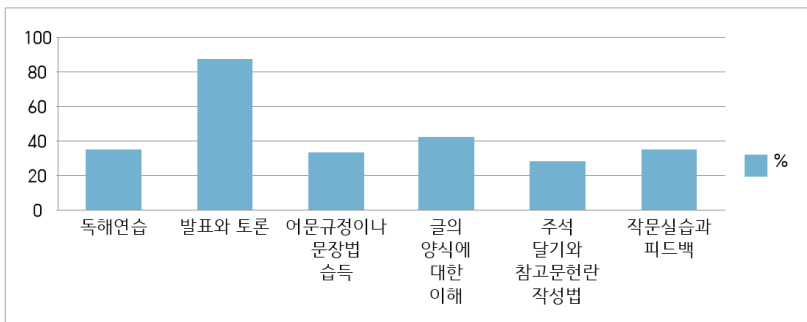


그림 1) 학생용 질문3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 되어 수업 효과가 떨어진 부분은?”의 응답률

반면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상강의로 진행되어도 수업효과 면에서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부분을 묻는 네 번째 질문에서는 ‘주석 달기와 참고문헌 작성법’이 80.4%, ‘어문규정이나 문장법 습득’이 69.3%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가장 낮은 선택을 받은 답은 ‘발표와 토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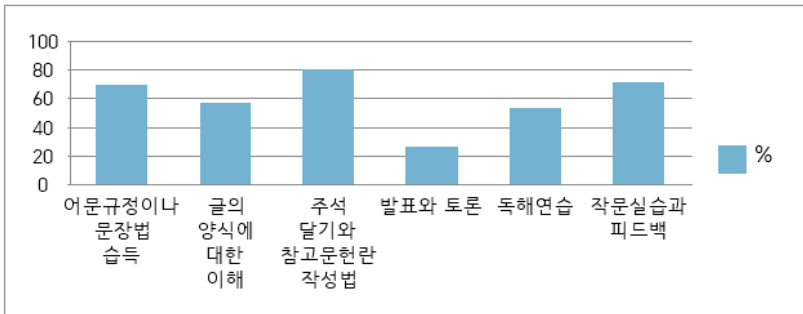


그림 2) 학생용 질문4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 되어 더 효과적인 수업은?”의 응답률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글쓰기 강좌가 원격화상 수업으로 진행 되어 학생들이 가장 지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체감한 것이 ‘발표와 토론’수업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학생들이 원격화상수업을 고교 때 들었던 ‘인강’쯤으로 여기고 교강사를 지식의 단순 전달자로 생각했다가 대학 강의가 토론식임에 놀라서 보인 반응일 수도 있다.⁹⁾ 그러나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슷하게 나왔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단 여기서는 설문조사 결과만 밝히고,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하겠다.

학생용 설문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항은 성적 즉, 학생 평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93.4%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험은 공정성이 의심된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시험을 대체할 성적 산출의 근거로는 ‘수업시간 중 활동이나 발

9) 임철일, 2003, p. 146.

표와 토론, 출석 등으로 산출한다.’가 48.2%, ‘과제로 대체한다.’가 46%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성적 분포의 경우, ‘A학점 50% 이내, A+B학점 80% 이내, C 학점 이하 20% 이상’이 48.4%의 응답률을 보였고, ‘A학점 40% 이내, A+B학점 80% 이내, C학점 이하 20% 이상’이 30.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절대평가를 한다.’는 20.9%, ‘A학점만 4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교수 재량에 맡긴다.’도 15.4%의 응답률을 보였다. 즉, 48.2%의 학생들이 시험이나 과제 없이 발표, 토론이나 작문실습 등 수업 시간에 한 활동과 출석 점수만으로 평가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시험 대체 과제를 해서 보다 공정한 평가를 원하는 학생들도 46%로 그에 못지않게 많았다. 이는 평가의 근거를 다양화하여 좀더 공정한 평가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말해준다. 즉, 코로나19로 팬데믹(pandemic)한 상황에서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상대평가를 선호하였고, 학점 분포와 관련해서는 A학점의 비중이 높은 쪽을 좀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번과 8번 문항은 서술형 답을 요구한 질문이었다. “대학 글쓰기 수업을 원격화상강의로 계속 진행해야 할 경우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라는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출석체크와 관련해서 교수자가 학생을 일일이 호명하지 말고 전자출결로 해 달라거나, 강의를 틀어만 놓고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교수자가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원격화로 진행되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보충 되었으면 하는 강의 내용이나 수업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라는 것이었다. 수업 중 질문을 하는 학생은 반드시 카메라를 켜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원격 토론수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8번 문항의 결과에서 카메라를 켜지 않는 학생이 대부분인 원격화상수업에서 교수자가 학생들의 수업 집중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토론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재확인되었다. 카메라가 있어도 켜지 않는 학

생이 많은 현실이 학생의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교강사의 강의 의욕을 저하시키며, 나아가 강좌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도 떨어뜨림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활공간이나 평소 꾸미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 수업시간에 다른 일(검색, 채팅, 게임)을 하려는 의도 때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고 원격화상수업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격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능동성, 자기조절능력이 성패를 좌우하는데,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면 그것에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 교강사용 설문조사 결과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20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구글 설문지로 이루어졌다. 교강사용 설문지는 총 9개 문항으로, 7개는 선다형, 2개는 서술형이었다. H대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글쓰기 담당 교강사 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는 12명으로 응답률은 63%였다. 교강사의 응답률은 학생의 응답률인 77%에 비해 약 14%가 낮았다. 이는 학생과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모두 원격화상수업을 한 학기 가까이 체험한 시점인 5월 말~6월 초에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가 학기 막바지여서 교강사들로서는 한창 분주한 시점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강사용 설문지의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원격화되어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였다. 글쓰기 수업에 한정되지 않고, 복수의 응답을 허용한 선다형 질문이었다. 응답률은 ‘교수자로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체크되지 않음’이 83.3%, ‘서버다운 등 접속불안정으로 인해 수업이 불안정함’이 66.7%, ‘토론이나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음’이 58.3%이었다. 기타 ‘학생들이 보는 화면을 교강사가 확인할 수 없음’과 ‘원격강의에 따른 장비의 사용법 및 조작법에 대한 사전교육 미비’도 33.3%씩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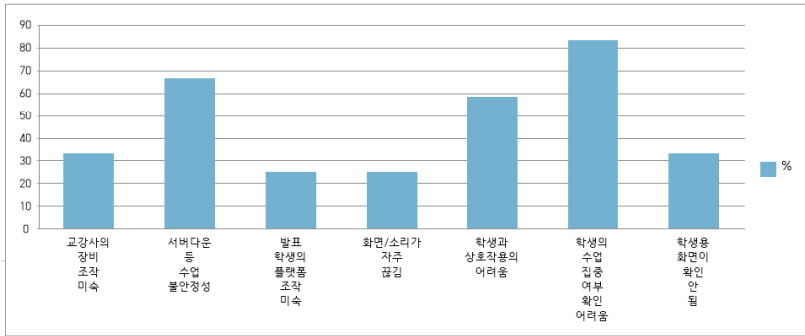


그림 3) 교강사용 질문1 “대학 수업이 원격화 되어 불편한 점은?”의 응답률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 되어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로 복수응답을 허용한 선다형이었다. ‘학생들이 카메라나 마이크 켜기를 꺼려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이 75%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토론 수업 등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강사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음’, ‘교강사가 학생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수업을 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음’이 66.9%씩으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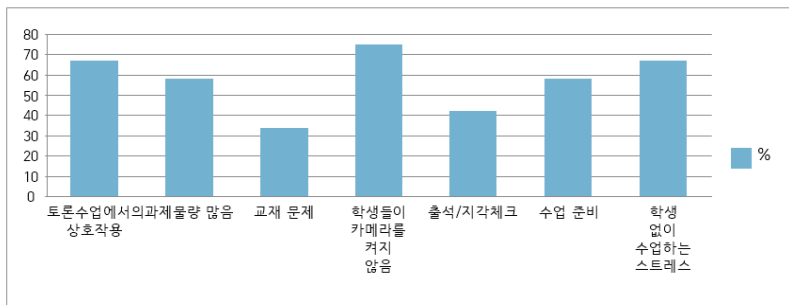


그림 4) 교강사용 질문2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 되어 불편한 점은?”의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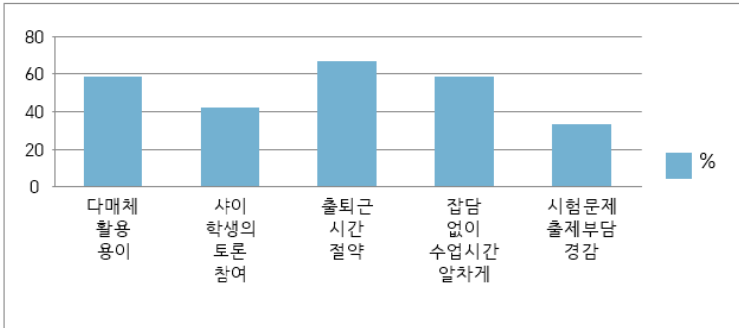


그림 5) 교강사용 질문3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 되어 좋은 점은?”의 응답률

반면,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로 진행되어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라는 세 번째 질문에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등하교 시간을 벌 수 있고, 복장 등에서 부담이 줄어들’이 가장 높은 66.6%, ‘동영상이나 PPT, e-book과 판서 등 다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과 ‘수업 내용 외의 잡담을 하지 않음’으로서 동일 시수에 더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음’이 58.3%씩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이 밖에도 ‘대면 수업에서 나서기를 꺼려했던 학생도 원격화상강의에서는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는 등, 샤이(shy)한 학생의 수업 참여가 보다 활발해짐’도 41.7%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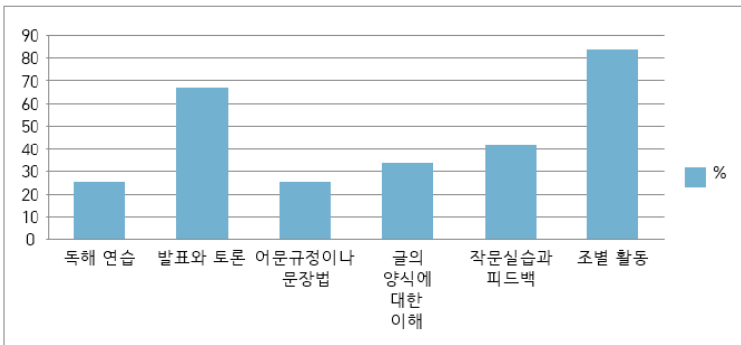


그림 6) 교강사용 질문4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 되어 수업효과가 떨어진 부분은?”의 응답률

네 번째 질문 “글쓰기 강좌가 원격화 되어 특히 수업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에 대한 답변은 ‘조별(모둠별) 활동’이 83.3%, ‘발표와 토론’이 66.7%로 높게 나왔고, ‘어문규정과 문장법’, ‘독해연습’이 똑같이 25%씩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선택되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글쓰기 강좌가 원격화 되어 수업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작문 실습과 그 피드백’과 ‘주석과 참고문헌란 작성법’이 각각 66.7 %, 58.3%로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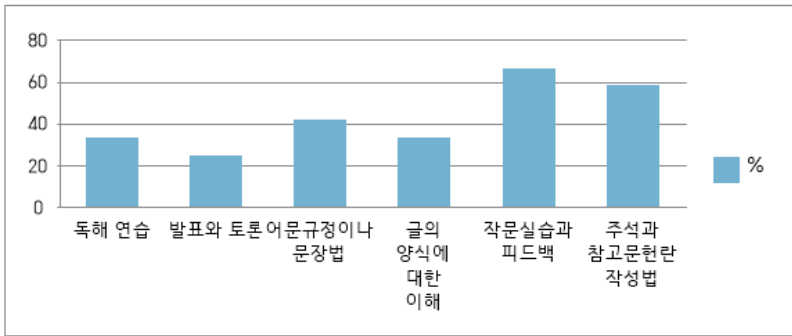


그림 7) 교강사용 질문5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 되어 더 효과적인 부분은?”의 응답률

이상의 사실들에서 원격화상수업에서 교강사들은 학생들의 조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토론 수업의 진행이 불편했으며, 상대적으로 작문실습과 그 피드백, 주석달기와 참고문헌란 작성법, 문장수정법 등의 지도는 수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용 설문조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원격화상수업으로 인한 이점이라기보다 학생들이 개인용 컴퓨터로 글쓰기 수업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편의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질문은 평가에 관한 것으로, 이들에게는 복수 응답을 허용하지 않았다. “원격화된 글쓰기 강의에서 성적의

공정성은 어떻게 해야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 교강사들은 ‘시험 없이 출석과 수업시간 중 학생의 활동들로 평가한다.’를 58.3%, ‘과제로 대체함’은 25%, ‘온라인으로라도 시험을 본다.’는 16.7% 응답하였다. 일곱 번째 질문은 “원격화로 진행된 글쓰기 과목의 2020 학년도 1학기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응답은 ‘절대평가’가 41.7%, ‘A학점 40% 이내, A+B학점 80% 이내, C학점 이하 20% 이상’과 ‘A학점만 5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교수의 재량에 맡긴다.’가 각각 33.3%이었다. 평가의 방법으로 ‘시험 대신 과제로 대체한다.’나 ‘온라인으로라도 시험을 본다.’라는 응답에 비해, ‘출석과 수업시간 중 학생의 활동만으로 평가한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원격화상수업에서는 학생 간 수업 집중도에서 차이가 커서 이를 성적 산출의 주된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과, 원격화상수업으로 인해 교강사의 업무부담이 크고 피로도가 높아 더 이상의 과제를 받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부담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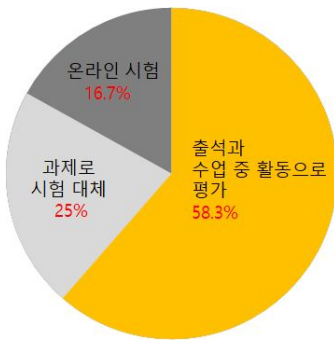


그림 8) 교강사용 질문6 “원격수업의 평가방법?”의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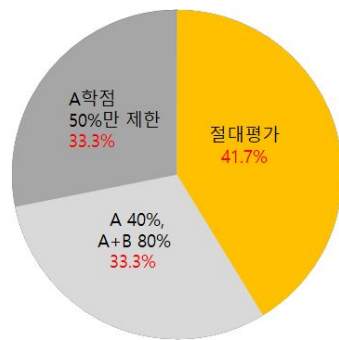


그림 9) 교강사용 질문7 “성적 분포는?”의 응답률

여덟 번째 질문은 서술형으로 “원격강의로 인한 교강사의 고충 해소나 원

격강의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 교강사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 모두에게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출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지하여 준수하게 했으면 합니다. 카메라가 켜지 않고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계정을 하나씩 교강사에게 부여하여, 교강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조별 토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사전 교육을 해주세요.

서버다운 등 접속이 불안정함, 목소리도 자꾸 끊김.

Cisco Webex 서버접속 불안정성 개선, 다른 원격 강의 프로그램인 Zoom의 경우 오류가 적음.

다행히 원격화상강의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강의내용이나 양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심화된 강의를 가능했다. 다만, 서버의 불안정(학교 주 서버)나 기말시험기간에 수업을 진행할 때 대형 시험 강의로 인한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15주차까지 강의 진행 등의 사항을 대단위 강좌의 경우(논사글) 다른 강좌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논사글 같은 경우 일종의 강의 진행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개별 강의평가 진행에 학생들의 불편(강의 시간이나 종강 시점 등의 형평성) 등을 살필 수 없어(다른 수업에서는 개별 강의평가나 피드백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없었기에) 마음이 불편했다.

이를 정리해 보면, ① 수업 중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도록 하는 문제, ② 학생과 교강사의 화면이 다른데, 교강사가 학생용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학생 계정 하나씩을 부여하는 문제, ③ 조별 토론 수업의 문제, ④ 음성이나 화면이

자주 끊기는 등 서버의 불안정성 문제, ⑤ H대가 사용한 Webex를 안정성과 다기능성이 뛰어난 서버로 교체하는 문제, ⑥ 일부 강좌의 대면기말고사가 3주간에 걸쳐 실시됨에 따라 글쓰기의 분반별 혹은 강좌별로 종강 시점이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상의 차이 문제 등이다.

하나씩 짚어보면, ①은 원격화상수업을 실시하는 학기에는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수업지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게 해 달라는 의견이다. 카메라를 켜지 않는 학생들의 심리는 회사원들이 상급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를 선호하는 심리와 흡사할 것이다. 학생들이 교강사의 시선을 피하려고 할수록 교강사들은 ‘깜깜이’수업을 하게 되고 수업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교강사는 학생들 모두가 카메라를 켜었을 때의 교강사용 PC화면을 캡처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학생의 수가 일정 정도를 넘으면 전체 학생이 카메라에 노출되어도 사실상 개별 학생의 모습이 자세히 노출되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또 교강사나 다른 학생들이 PPT 등의 메인 화면을 주시하느라 카메라에 잡힌 개별 학생의 소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음을 학생들에게 확인시켜주어 불요한 염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②는 학교에 건의해서 학생용 계정을 교강사가 하나씩 부여받도록 하면 해결될 것이다. ③은 2020학년도 1학기의 시작이 Webex 플랫폼 사용법을 교강사들에게 세세하게 교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발생한 H대의 문제로, 2학기에는 많은 부분 개선된 문제이다. ④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⑤는 대학 차원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⑥은 추후 원격화상수업을 해야 하는 학기가 생기면 H대 교강사들이 의논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은 “글쓰기 수업의 원격화로 인한 교강사의 고충 해소나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강의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방법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였다. 교강사들의 답변 가운데 유의미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학생 전체에게 원격화상강의시 준수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글쓰기 강좌가 교양수업이라 그런지,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지 않고 수업에 임해 학생들이 강의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교강사도 ‘깜깜이’ 수업을 해야 해서 수업이 더 힘이 듭니다. 학생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면 수업참여, 즉 출석체크가 자동으로 되는 방식이 있으면, 이를 특히 교양 수업에 적용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작문 실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 개선

내용 보강이 시급한 교재(그나마 이번 학기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매번 강의안을 만들었음), 전체적인 공유 매뉴얼(과제 분량, 중간 기말 시험 혹은 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상에 적시된 교강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또다시 원격화상수업을 해야 하는 학기가 되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과 교강사들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수칙들을 정리한 매뉴얼로 만들어 공지하고 이를 학생들과 교강사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글쓰기 강좌를 원격화상수업으로 할 경우 작문실습은 대면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원격화상강의에서는 교재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원격화상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기가 계속되면, 글쓰기 교강사들이 모여 대면수업과는 차별화된, 원격화상수업에 적절한 수업 내용과 강의 구성을 함께 의논하고, 또 공통적인 내용은 함께 개발하여 결과물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되었다.

III.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수업 구성의 측면

1) 발표 및 토론 수업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학문 탐구의 기초를 다짐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그들이 유능한 인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¹⁰⁾ 글쓰기 강좌는 학생들이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생각하며, 또 그것을 변형하거나 가공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결과물을 타자와 공유하도록 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더욱이 현대가 지식기반사회여서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더해지고 있다. 대학 글쓰기는 과정 중심의 강좌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기’와 ‘독자 중심의 글쓰기’가 통합된 교과목이다. 그런데 글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생각하기’는 논리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프리젠테이션이나 발표와 토론, 질의와 응답 등의 ‘말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각하기’는 사실상 대화하기를 통해 실천된다. 따라서 ‘말하기’는 곧 ‘생각하기’의 외현(外現)이다. 생각한 것에 정리된 표현을 입히면 그것이 곧 글이 된다. 따라서 글쓰기 수업에서 토론이나 발표, 질의와 응답 등, 학생과 교강사,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은 ‘생각하기’의 과정이자, ‘글쓰기’의 내용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빠뜨릴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교강사들이 글쓰기 과목의 원격화상수업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발표와 토론수업이었다.¹¹⁾ 발표나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은 자신의 사고력과 소통능력을 십분 활용하게 되고 또 발휘하

10) 전향진·김광수, 「온라인에서의 글 수정 전략과 성찰저널 작성 여부가 대학생의 글 수정과 글쓰기에 미치는 효과」, 『사고개발』 6(2), 2010, p. 146.

11) 다른 대학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김보영·한승우,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대학 온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 연구」, 『교양학연구』 13, 2020, p. 26.

게 된다. 원격화상으로 진행되는 토론수업을 연구한 구정화는 원격화상토론에서 학생들의 사고력은 대면수업에서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덜 활성화되고, 소통능력은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대면수업에서의 토론은 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이나 사고기능의 활성화 정도가 높음에 비해, 원격화상수업에서의 토론은 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고, 토론과정에 대한 흥미 역시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수업에 대한 몰입도도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화상수업에서 토론 및 발표 등, 학생들의 활동 수업의 중요성은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격화상수업에서 교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면,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는 교실대면수업에서보다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원격화상수업에서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대화가 새로운 교육적 핵심으로 떠오른 것¹³⁾도 바로 그 때문이다.

2020학년도 대학 신입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식 등도 하지 못한 채 원격화상수업으로만 대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학교나 학과에 대한 소속감은 물론, 학과 동료와의 친밀감도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집에서 원격화상수업을 하며 느꼈을 대학 신입생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동료들과의 조별 활동이나 토론 및 발표 수업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동료들의 존재를 체감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친교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나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조금은 실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교양강좌에서 행하는 학생들의 활동들은 비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격으로 진행되는 글쓰기 강좌에서 토론이나 발표 수업에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려면 우선 논제 자체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12) 구정화, 「초등 사회과의 면대면 및 온라인 토론수업 비교 연구」, 『시민교육연구』 37(2), 2005, p. 1.

13) 정인성·나일주, 2004, p. 88.

14) 조은순·염명숙·김현진, 『원격교육론』, 파주: 양서원, 2012, p. 148.

만한 것이어야 하고, 토론 과정 자체도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상세대인 학생들에 맞추어, 영상물이나 플래쉬 애니메이션 등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서도 문자로, 마이크를 통해서도 음성으로 언제든지 학생들이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다각도로 열어두고 수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통에는 음성뿐 아니라 제스처나 표정, 눈빛 등의 비언어적 표현수단도 중요하므로, 발표와 토론 수업에서만큼은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카메라를 켜지 않은 채 발표와 토론을 하면, 발언자와 청청자 사이의 비언어적 정보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교강사만 일방적으로 카메라에 장시간 노출되면 마치 무대에 홀로 선 뺨에로처럼 느껴져 교강사가 받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자가 듣는 자의 눈을 보며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뿐 아니라 교양수업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시선은 원래 주체와 타자나 세계를 연결해주는 기본 매개체이다. 또 타자와 눈빛을 교류하거나 시선을 부딪치는 일은 타자와 관계맺음의 시작이며 소통의 핵심이다.¹⁵⁾ 원격화상수업에서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교강사는 혼자 외딴 섬에 갇힌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학생을 바라보며 수업하는 교강사는 그가 보고 있는 학생들의 시선이나 표정 등의 반응(reaction)을 통해 강의하는 자신을 읽고 본다.¹⁶⁾ 학생들의 비언어적 반응들에서 교강사는 강의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기도 하고, 자신의 강의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도 한다.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닌, 진정한 교양교육은 이렇듯 교강사와 학생이란 두 주체 간의 시선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니터에 학생이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강사가 혼자 강의를 하는 것은 PPT로 교강사가 혼자서 소리 내어

15)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서울: 기파랑, 2008, p. 6.

16) 메틀로 풍티는 봄과 보임의 교환체계를 세잔느의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내가 저 풍경을 보는 것은 기실 저 풍경이 나의 봄을 통해 제 스스로를 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광제, 「메틀로-풍티의 후기 철학에서의 삶과 색」, 『현상학과 현대철학』 16, 2000, p. 127.

자가학습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교강사는 강의 의욕이 저하되고 학생들은 수업 몰입도가 떨어져 결국 강좌 개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수업 효과마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설사 학생들이 모두 카메라를 켜고 원격수업에 임하고, 또 교수와 학생들이 모두 카메라를 정면으로 주시한다 해도 현재의 웹 기반 수업환경에서는 학생과 교강사 간 아이컨택(eye contact)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¹⁷⁾ 왜냐하면 학생들과 교강사의 카메라의 위치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즉, 교강사나 학생 개인의 노트북 카메라나 외장 카메라가 모두 동일하게 각자의 개인 PC 모니터의 정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주시하여도 누구도 상대방의 눈을 정확히 마주 보기는 쉽지 않다. 분반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정도가 덜할 수 있겠으나, 반별 수강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아이컨택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류와 소통에서는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시각은 인간의 인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가장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감각이다. 따라서 깊이 있는 대화는 눈빛 혹은 시선의 교류에 기초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주어진 문제를

17) 원격화상으로 회의나 강의를 할 때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 간 아이컨택이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실현이 가능하긴 하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 Claudia Kuster 외 4인, "Gaze Correction for Home Video Conferencing" in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31(6), 2012, p. 1-6에서는 피사체와 카메라의 위치 사이의 차이로 인한 아이컨택의 부족은 원격화상대화의 소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데, 이를 장면의 시선 교정 3D 모델을 렌더링하고 얼굴 추적기를 사용하여 시선 교정 얼굴 부분을 원본 이미지에 매끄럽게 전송하여, 대화를 하는 양쪽 화자가 서로 화면의 정면을 주시하도록 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Daniil Kononenko · Victor Lempitsky, "Learning to look up: Realtime monocular gaze correction using machine learning", *2014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Boston, MA, 2015, p.4667-4675에서는 원격화상강의시 교수자와 학습자의 시선에서 초점을 읽어 그것을 아이트래킹하여 일직선으로 연결시켜주어 마주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아이컨택을 구현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들이 최적의 선택인지를 검토하는 과정과 주어진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등의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토론 수업¹⁸⁾에서 시각이 중요한 요소인 것도 그 때문이다. 이미 밝혀진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비중을 둔 과목들과 달리, 교양강좌로서 글쓰기 수업은 학생들과 교강사가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를 놓고 보다 적절하고 타당한 답을 찾기 위해 토론을 벌이는 부분이 수업의 핵심과정이다. 교강사가 해석의 권위자로 등장하여 혼고식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강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소통 속에서 비판적 사고, 창의적인 생각을 조직화해내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이 강좌의 개설 목적의 하나이다.¹⁹⁾ 창의적인 글쓰기 교육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열어두고 이성과 감성을 모두 작동시켜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차별화되는, 비판적이고 통합적이며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을 촉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수업에서 교강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은 중요하며,²⁰⁾ 특히 발언하는 자와 경청하는 자 간의 아이컨택은 토론의 진지함과 신뢰성, 몰입을 이끌어내는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원격화상수업에서 교강사나 학생들은 1m 내외의 거리에 놓인 발광체인 모니터를 장시간 쳐다보아야 하기에 시각적인 피로감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²¹⁾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화면 속에 다른 학생

18) 박승억, 「시각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리고 논증적 글쓰기」, 『인문과학』 99, 2013, p. 109와 p. 114.

19) 소병철, 「철학적 글쓰기의 지도 원칙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 95, 2012, p. 134-135.

20) 박현희, 「통합적 열린글쓰기 교육원리에 입각한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교육모형」, 『사고와표현』 4(2), 2011, p. 7-8.

21) 직립 보행하는 인간은 시선의 초점을 약 2m 이상 두어야 피로감을 덜 느낀다고 한다. 두 눈 사이의 양각으로 인해 인간은 원거리를 볼수록 시선의 편안함을 느끼기에 야외에 나가 산과 하늘 등 넓은 시야를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눈과 두뇌의 피로가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게 된다. 반면, 근거리의 모니터를 장시간 뚫어지게 주시해야 하는 원격화상수업의 경우, 부자연스럽게 좁혀져 초점화된 양각은 장시간 비정상적으로 좁은 사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격이 되어 결국 눈뿐 아니라 두뇌의 피로도 가중시키게 된다. 김영주 외 3인, 「시각자극에 의한 피로도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연구 조사」,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30(1), 2011, p. 195-202 참조.

들이 있다는 사실만 감지할 뿐, 누구와도 구체적으로 시선을 주고받거나 마주치지 못하며, 또 모니터에 비치는 대상만을 수동적으로 바라볼 뿐, 자신이 바라볼 대상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발표와 토론을 해야 해서 논의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 즉, 보는 눈들은 있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있으나, 각각의 시선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수업 환경에서는 학생과 교강사 모두가 ‘보여지는 자’의 공포나 스트레스와 소외감만 느낄 뿐, ‘보는 주체’이자 능동적인 소통의 주체로서 즐거움과 교류의 기쁨을 만끽하기는 매우 어렵다. ‘보여지는 주체’가 느끼는 수치스러움이나 불편함²²⁾은 PC의 모니터에 내장된 카메라가 모니터를 주시하는 시선에 따라 움직이며 카메라 스스로 주체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 가도록 PC가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원격화상수업 환경에서야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이콘택이 자유롭지 못한은 현행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2) 작문 실습

학생들의 수업태도나 학업성적을 엄정하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원격화상 수업은 어느 정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강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이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과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적절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인강’ 형태의 원격수업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²³⁾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연구한 예로는 2003년도 2학기의 영남대학교 사례가 있다. 80명씩 A, B, C 3개 반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를 실험을 했더니, 결과는 반당 평균 5명 정도의 학생만이 학습 콘텐츠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이 사례는 시공간

22) 박정자, 2008, p. 221.

23) 최병도 외, 「원격강의의 학습 집중도 평가 시스템」, 『정보처리학회 논문지 A』 12-A(3), 2005, p. 182.

24) 최병도, 위의 글, p. 188.

의 자유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원격교육은 전통적인 교실수업에 비해 학생 스스로의 학습 의지에 따라 수업 집중도가 현격히 달라지고, 그로 인해 수업 효과도 크게 달라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화상수업도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를 높이고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안, 실행하지 않으면 대면강의에 비해 수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원격화상수업은 강의 중심의 구성보다 학생활동이 중심인 프로젝트형 수업 설계가 효과적이다. 원격화상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교재를 사전 학습을 하게 한 후, 수업시간에는 질문과 토론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실제로 문제를 주고 학생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설계가 효율적이다.²⁵⁾ 팀별로든 개인별로든 프로젝트를 설계를 할 때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와 콘텐츠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학생들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수업 이외의 일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교강사들은 수업을 기획할 때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반응을 사전에 예측하여 퀴즈와 같은 상호작용형 평가시스템을 수시로 가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윤강(輪講)이나 팀티칭(team teaching)의 방식으로 교수별 전문성을 살리자는 제안도 있다.²⁶⁾ 그러나 이는 한 교강사가 동일한 강좌를 여러 분반 맡아야 하는 글쓰기와 같은 교양강좌의 경우, 편성과 운영상의 문제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차시의 수업자료를 미리 공개하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보거나 읽어들 수 있게 한 다음, 수업시간에 심층 독해와 분석 작업을 토론을 통해 함께 한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학생 각자가 글쓰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25) 흔히 이를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이라 하며, 양자를 혼합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이라 한다. 정성호, 「온라인 강의의 긍정적 활용과 한계」, 『기계저널』 60(10), 2020, p. 6.

26) 최성호, 「효과적인 원격강의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방향」,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p. 17.

글쓰기 수업을 듣는 1학년 학생들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세대이다. 따라서 수업에 유튜브와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²⁷⁾ 이들은 다양한 통신기구를 활용해서 정보의 검색과 공유나 전달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세대이기에, 개방과 공유,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인터넷 환경을 심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별 토론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 웹에 조별 미팅룸을 개설하는 것이 용이치 않으면, 카카오톡과 같은 SNS에 오픈 챗(Open Chat)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런 웹 기반 교육환경을 악용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원격화상수업에서 학생들이 PC로 작문한 글들이 이전 학기에 대면교실수업에서 종이에 필서로 쓴 글들에 비해 학생 간 편차가 적었다는 것이 교강사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과 동시에 스마트폰 등으로 교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빚어진 일로 보인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화상수업에서 글쓰기는 동시성과 신속성, 정보 교환의 편리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인터넷세대인 학생들은 이를 심분 활용할 수가 있다.²⁸⁾ 실제로 온라인 강의에서 학생들이 과제물을 서로 베껴서 낸 정황이 발견된 사례들도 꽤 보고되었다.²⁹⁾

학생이 다른 학생의 작문 결과물을 베껴 내지 못하게 하려면 학생의 작문 주제를 각자 스스로 정하게 하거나, 그룹별로 서로 다른 주제를 부여하거나 그룹별로 서로 다른 독해 자료를 주는 것이 좋다. 또 자기 탐구적인 주제를 부여해서 학생 개개인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기성찰적인 글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글쓰기를 크게 자아 성찰적 글쓰기와 공동

27) 김윤선, 「스마트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의 변화」, 『교양교육연구』 6(3), 2012, p. 275-276.

28) 이 밖에도 친교 기능과 여론 형성 강화, 멀티미디어의 활용 등이 꼽히기도 한다. 김윤선 위의 글, p. 262.

29) 하영, 「서울대도 온라인강의 부정행위...공정평가 몸살 앓는 대학가」, 『교수신문』, 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2976, 2020-07-02:22:01:49. 기계공학에서 제도과 모델링 수업의 경우에도 온라인 시험에서는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대거 발견되었다. 송기영, 「온라인 실습수업의 이상과 현실 차이」, 『기계 저널』 60(7)(통권 제476호), 2020, p. 40-41.

체 지향적 글쓰기로 구분한다면, 원격화상수업에서 작문실습은 자아 성찰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학생들이 남의 글을 함부로 베끼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³⁰⁾ 학기 초반에는 특히 ‘자기서사쓰기’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동료의 글에 또래로서 공감하게 하여 친교나 소속감 형성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때 ‘자기서사’란 자신의 경험과 내적 성찰을 결합한 글을 말한다. 학생들이 이 두 요소를 결합시켜 자기이야기를 서술해 봄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의 향방을 탐색하며 자아정체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또한 ‘교양’ 교과인 글쓰기 강좌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³¹⁾

원격화상수업에서 독해자료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올려주기 보다는 PDF나 이미지 파일로 올려줄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독해자료에서 일정 부분을 끊어다가 약간 변형시켜 자신의 글로 대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교강사는 학생이 쓴 글을 사례로 들어 문장을 가다듬는 방법을 수업 시간 중에 보여주면,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³²⁾ 또 학생의 작문 결과물을 동료 학생들에게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게시판’ 형태의 웹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면 먼저 올린 학생의 글을 다른 학생이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료 간 작문결과물의 공유는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유발할 뿐 아니라, 공감을 통해 또래 감성을 확인하는 등, 학생 간 소통이란 비학습적인 맥락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³³⁾

30) 자기성찰적 글쓰기는 자신과의 대면이자 자신을 세상으로 끌어내는 과정으로 인성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반면 공동체 지향의 글쓰기는 ‘나’를 타자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갖춘 통합적 주제로 설정함으로써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간상을 글쓰기 교육을 통해 구현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김용하·신윤주,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온·오프라인 글쓰기 수업 모델과 설계」, 『인성교육연구』 1(1), 2016, p. 3.

31) 김수아, 「온라인 글쓰기에서의 자기 서사와 정체성 구성」, 『한국언론학보』 52(5), 2008, p. 57.

32) 이를 교수학습센터 등에서 행하는 ‘완성글’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클리닉의 평가 중심의 침식지도와 구분하여 과정적 침식지도라 칭하며, 클리닉의 침식지도에 비해 효과가 높다는 연구가 최근에 제시된 바 있다. 박호관·전용숙, 「D대학 설득적 글쓰기 침식지도와 ZOOM 활용 방안 모색」, 『우리말글』 85, 2020, p. 52.

33) 오미형, 「문장구역 원격강의 :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3), 2011,

2. 강좌 운영의 측면

1) 강좌 관리 문제

원격화상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이나 학생 관리도 현재의 기술력 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격화상강의에서 교강사들이 보는 화면은 학생들이 보는 화면과 display 구성이 다르다. 때문에 교강사들은 학생들의 화면에 PPT가 제대로 열렸는지, 칠판 판서의 활자 크기는 적절한지, PDF 파일이나 동영상 화면이 잘 보이는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교강사의 화면에서는 잘 보이는 내용들이 학생의 화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화면을 교강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학생용 계정을 하나씩 배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차수의 강의는 녹화를 하여 수업 후에도 학생들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원격화상강의가 갖는 대표적 장점인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³⁴⁾은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업을 녹화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이를 미리 공지하여 동의를 구한 다음 녹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켜 학생이 일부일지라도 그 학생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원격화상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강사들이 준수해야 할 수업 지침을 각각 마련하여 이를 공지하여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지 않아 교강사가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섬’이 된 기분을 느끼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한 원격화상강의는 학습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정도가 크므로, 학습자는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웹캠을 켜고 수업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업 중 이동이나 다른 행동을 하기가 쉽고 어려운 정도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 그런 만큼 수업 집중도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카메

p. 133.

34) 정성호, 2020, p. 7.

라를 켜고 수업에 임하도록 독려하는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교강사들은 매 학기 새로운 학생들을 맞아 수업하기 때문에 원격화상강의가 진행되는 학기에는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얼굴을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채 학기를 마치게 된다. 따라서 프리젠테이션 실습이나 발표 수업 등에서 현재 발언하고 있는 학생이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이 맞는 지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강좌 시작 전과 후에 5분씩을 할애하여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하는 시간을 갖는 등 하여, 교강사들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시간을 늘려야 한다. 또 이메일과 전화를 활용해 개인 면담도 병행하여 학생과의 접촉 국면을 넓혀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 집중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수시로 퀴즈도 내고, 과제 안내 등을 수업 중 불시에 하여 수업에 집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구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강좌 관리를 해야 한다.

대면교실수업에서의 작문실습에서는 학생이 쓴 글을 주변에 앉은 동료 학생들과 교차 검토를 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원격화상수업에서도 Webex나 Zoom에 조별활동을 위한 room을 만들어 조별로 작문한 글을 공유하면서 학생 간 상호교차평가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평가를 위해 교강사만 볼 수 있게 설계된 클래스넷이나 클래스룸 혹은 사이버 캠퍼스 등의 과제란이 아니라, 같은 분반 학생 전체가 학생이 쓴 글을 공유할 수 있게 인터넷 포털에 수업용 카페를 개설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발표나 토론 등 말하기와 관련된 수업에서는 다른 학생이 발언하고 있는 중에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떠오른 학생은 채팅창에 의사를 표명하게 하고, 또 SNS에 익숙한 학습자들을 위해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창이나 라이브톡 등 기타 발언 창들도 열어 두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³⁵⁾ 또 동료 학생이 발언하고 나면 다른 학생들은 ‘ 짹! 짹! 짹!’이나 ‘넵 잘 하네요!’,

35) 비대면 수업에서 토론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런 방법이 자주 활용되곤 한다. 이현영, 「명저읽기 수업에서의 미시적 읽기 연구 -『죄와 벌』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4), 2020, p. 178-179.

‘좋아요!’ 등의 반응을 자유롭게 채팅창에 문자로 남기게 하여, 동료 간 독려와 소통을 장려할 필요도 있다. 수업에 집중하면서 채팅창을 동시에 관리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교강사는 채팅창들을 십분 활용해서 비대면수업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석도 수업 시작할 때에는 매번 체크하고, 마칠 때에도 가끔씩 체크를 해서, 수업 시작할 때에는 있었는데 종료 시에 부재하는 학생은 ‘조퇴’처리를 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기치 못하게 서버가 다운되는 등, 수업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kakao open chat) 등의 창구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유사시에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기다리게 한 후 수업을 재개하는 것도 강좌운영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평가 문제

원격화상수업은 공정한 평가가 쉽지 않은 교육형태이다.³⁶⁾ 특히 공대, 조형대, 건축대, 미술대가 있는 H대는 원격화상강의로 대체가 쉽지 않은 실험과 실습 과목들이 많아서,³⁷⁾ 학기말이 가까워오자 공정한 평가라는 난제를 놓고 내부에서의 논의가 활발했다. 결국 대면시험이 불가피한 과목들은 철저한 안전수칙의 준수와 시험장 환경의 구비를 전제로 조심스럽게 대면시험을 실시하였다. 글쓰기 강좌의 경우, 대다수의 교강사들은 과제로 시험을 대신했다. 하지만 글쓰기야말로 온라인시험으로도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과목일 수 있다. 제한시간 안에 글을 쓰게 하되, 문제는 가급적 주제어 정도로만 제시해 주고, 학생들이 각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독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글을 쓰게 하고 주석과 참고문헌까지 달게 하는 식으로 말이다.³⁸⁾ 이때 표절이 의심되는 답안에 대한 감점 기준을 사전

36) 하영, 「서울대도 온라인강의 부정행위...공정평가 몸살 앓는 대학가」, 『교수신문』, 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2976, 2020-07-03:09:55:35.

37) 원격강의 혹은 온라인수업의 가장 큰 맹점은 실험실습이 많은 과목들이다. 정성호, 2020, p. 7.

38) 웹 클라우드 미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시험을 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실시간으로 교강사가 한 문제씩을 띄워주고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답을 쓰도록

에 명확히 고지하고, 분반별로 시험문제인 주제는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글쓰기 과목의 평가는 결국 객관적인 기준이란 문제에 봉착한다. 출석점수나 수업 중 실시한 퀴즈점수, 질문이나 토론에의 참여횟수 등 수업참여 점수 등 비교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의 배점을 미리 정확히 고지한 후, 발표(프리젠테이션)과 작문 실습한 결과물, 과제(시험 대체 과제 포함) 등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시간 중에 학생의 글을 피드백을 할 때마다 교강사는 글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거기에 맞추어 평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0학년도 1학기의 성적산출방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를 더 원했다. 코로나19로 원격화상수업이 실시되었지만, 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의식한 듯, 성적은 차등적이고 변별성 있게 부여되기를 원했다.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 형성과 우수한 학점 취득에의 부담감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³⁹⁾ 2020학년도 1학기의 특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상대평가라는 전체 틀 안에서 A학점의 비중을 좀더 높여주길 원했다. 반면, 교강사들은 2020학년도 1학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성적만큼은 절대평가를 해서 교강사의 재량에 맡겨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원격강의로 인해 수업의 질 하락을 우려하거나 그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고⁴⁰⁾ 대부분의 학생들은 캠퍼스 생활도 만끽하지 못했으며 실험과 실

하고, 학생들의 키보드, 화면, 마우스, 자세 등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다. 김경숙, 「대학에서의 실시간 온라인 시험 경험 및 공정성」, 『한국과학기술학회 논문지』 21(9), 2020, p. 229.

39) 이미나, 「대학생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전공계열별 인식 비교」, 『교육과정연구』 30(3), 2012, p. 363.

40) 전대넷이 전국 203개 대학, 2만 1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2%가 등록금 환급이 필요하다 답했다. 이중 82%가 “온라인 강의가 수업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고 운영 자체도 원활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학생들은 원격강의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교강사와 학생 간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꼽았고, 버퍼링, 저화

습 과목도 대면수업시절에 비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게 이수해야 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대면수업을 하던 평상 학기에 비해 비대면수업을 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학생들의 성적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줄 수 있도록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한 대학들도 꽤 있었다.

IV. 결론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에 한국의 대학들은 다양한 형태로 원격수업을 실시하였다. 하여 약 3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원격교육을 받았고, 2학기에도 이는 계속되었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는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따라서 2020학년도 1학기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보다 질 높은 원격화상수업을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 글은 대학 1학년생의 교양필수과목인 글쓰기 강좌에 한정하되, 2020학년도 1학기 H대 글쓰기 과목을 원격화상강의로 이수한 학생들과 또 이를 담당한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에 관해 살펴보고 모색해 본 것이다.

지금껏 대학에 개설된 글쓰기 강좌는 온라인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이 강좌는 학생과 교강사,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수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확보할 것인가인데, 이는 학생과 교강사, 학생과 학생 간의 심층 논의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층 독해를 기반으로 수업참여자 간 상호 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오피니언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이를 통해 글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논리력이나 비판

질, 소통의 시간차 등 장비나 기술적 요인들, 네트워크의 문제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한영혜, 「전대넷 “대학생 99%, 등록금 반환 요구”」, 『중앙일보』, 2020년 4월 22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759898>, 2020-07-15-14:33:27.

력, 창의력을 서서히 신장시켜 간다.

H대 학생들과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글쓰기 수업의 원격 화상강의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발표와 토론 수업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학기 초반에는 장비의 낮은 질이나 서버의 불안정성, 장비조작의 미숙함 등도 문제였으나, 점차 수업이 안정화되어가면서 교강사들은 특히 수업 중에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지 않아 어려움이 컸고, 학생들은 교강사나 다른 학생과의 소통에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교강사들은 학생들과 아이컨택은커녕 학생의 얼굴조차 한번 보지 못한 채 학기를 종료해야 해서 가르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기가 어려웠다고 토론했다. 학생들이 모두 카메라를 켜고 수업에 임한 경우에도 교강사와 학생들 간의 아이컨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30명 안팎인 분반 규모와 학생의 카메라 위치가 제각각인 데에서 일차적으로 연원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생각을 키워가야 하는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 아이컨택이 되지 않는 상황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묻는 학생과 답하는 학생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고 아이컨택도 되지 않아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또한 작문실습에서는 학생들이 쓴 글의 편차가 대면수업에서의 그것에 비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또 원격화상토론 수업에서는 질문이나 발언의 순서를 정하는 단순한 일도 의외로 번거로웠고, 지각생을 처리하는 문제도 그러했다. 반면, 글쓰기 강좌를 원격화상수업으로 해서 유리한 부분은 주석달기와 참고문헌란 작성법 익히기, 어문규정과 문장교정법이나 인터넷 자료 검색법 등이었다. 이 밖에도 유튜브 동영상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 PDF 파일 등의 수업 자료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이었다고 조사되었다.

글쓰기 강좌의 원격화상강의화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가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카메라를 켜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원격화상 수업을 위한 학생용 지침을 만들어 공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다만 이는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또 학교는 교강사들에게 학생용 계정 하나씩을 부여해서 교강사가 학생들이 보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강사들의 입장에서는 글쓰기 강좌를 원격화상수업으로 진행할 때에는 소통에 제약이 따르는 토론이나 발표 수업의 비중을 다소 낮추고 작문 실습과 그 피드백의 비중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강의 중심의 수업 보다는 학생 활동이 중심인 프로젝트형 수업 구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작문실습에서는 스마트폰 등으로 학생들이 남의 글을 펴 와서 자기 글의 일부로 대체하기 쉬운 환경임을 염두에 두고 주제의 선정이나 text의 제시방법, 결과물의 공유 등에서 대면수업과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함도 알게 되었다. 즉, 원격화상수업에서는 교강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작문의 전 과정을 시물레이션해 보면서 작문실습을 구상해야 한다. 또 교강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할 방법을 미리 강구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수업 도중에 불시에 서버가 다운될 때를 대비해서 학생들과 소통할 가외의 창구도 미리 마련해 두는 등, 강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교강사들의 섬세한 노력과 대비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글쓰기 강좌의 원격화상강의는 단순히 대면강의를 웹상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특성들을 고려한 적절한 내용 구성과 운영방법을 찾아서 실행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화상수업은 학생과 교강사, 학생과 학생 간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면 공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며, 대면교실수업과는 다른 의외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수업 참여자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교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로써 학생과 교강사는 수업 내용에의 몰입이라는 맥락을 공유하게 되어 어느덧 '다른 공간'이 아닌 마치 한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대면'의 한계는 자연스레 휘발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교강사와 학생들 간에 정확한 아이컨택을 가능하게 해줄 웹 기반 교육환경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원격수업=질 낮은 수업'이

란 학생들의 인식을 불식하는 데에는 교강사들과 학생들의 노력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다른 공간’이란 장벽을 뛰어넘어 함께 배우고 익히는 과정과 맥락을 공유하는 주체로서 수업에의 몰입이라는 지점에서 깊이 만나야 할 존재들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원격화상강의, 글쓰기 강좌, 아이컨택, 구글 설문 조사

[참고문헌]

- 구정화, 「초등사회과의 면대면 및 온라인 토론수업 비교연구」, 『시민교육연구』 37(2), 2005, p. 1-34.
- 김경숙, 「대학에서의 실시간 온라인 시험 경험 및 공정성」, 『한국과학기술학회 논문지』 21(9), 2020, p. 229-237.
- 김보영 · 한승우,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대학 온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 연구」, 『교양학연구』 13, 2020, p. 7-31.
- 김수아, 「온라인 글쓰기에서의 자기 서사와 정체성 구성」, 『한국언론학보』 52(5), 2008, p. 56-82.
- 김영주 외 3인, 「시각자극에 의한 피로도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연구 조사」,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30(1), 2011, p. 195-202.
- 김용하 · 신윤주,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온·오프라인 글쓰기 수업 모델과 설계」, 『인성교육연구』 1(1), 2016, p. 1-26.
- 김윤선, 「스마트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의 변화」, 『교양교육연구』 6(3), 2012, p. 249-279.
- 박승익, 「시각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리고 논증적 글쓰기」, 『인문과학』 99, 2013, p. 103-121.
-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서울: 기파랑, 2008.
- 박현희, 「통합적 열린 글쓰기 교육 원리에 입각한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교육 모형」, 『사고와 표현』 4(2), 2011, p. 7-34.
- 박호관 · 전용숙, 「D대학 설득적 글쓰기 첨삭지도와 ZOOM 활용방안 모색」, 『우리말글』 85, 2020, p. 29-61.
- 베첼 미하엘, 「책의 종말과 문자의 전자적 확장」, 『인문과학』 100, 2014, p. 113-128.
- 소병철, 「철학적 글쓰기의 지도 원칙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 95, 2012, p. 133-147.
- 송기영, 「온라인 실습수업의 이상과 현실 차이」, 『기계저널』 60(7), 2020, p. 37-41.
- 오미형, 「문장구역 원격강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3), 2011, p. 111-139.
- 이미나, 「대학생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전공계열별 인식 비교」, 『교육과정연구』 30(3), 2012, p. 353-376.
- 이현영, 「명저읽기 수업에서의 미시적 읽기 연구 『죄와 벌』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4), 2020, p. 177-188.
- 임철일, 『원격교육과 사이버 교육 활용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2003.
- 전향진 · 김광수, 「온라인에서의 글 수정 전략과 성찰저널 작성 여부가 대학생의 글 수정과

- 글쓰기에 미치는 효과], 『사고개발』 6(2), 2010, p. 145-164.
- 정성호, 「온라인 강의의 긍정적 활용과 한계」, 『기계저널』 60(10), 2020, p. 6-7.
- 정인성·나일주, 『원격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04.
- 조광제, 「메를로-퐁티의 후기 철학에서의 삶과 색」, 『현상학과 현대철학』 16, 2000, p. 112-143.
- 조은순·염명숙·김현진, 『원격교육론』, 파주: 양서원, 2012.
- 최병도 외 5인, 「원격강의의 학습집중도 평가시스템」,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12-A(3), 2005, p. 181-190.
- 최성호, 「효과적인 원격강의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방향」,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p. 9-38.
- 최용환,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침삭지도」, 『교양교육연구』 7(1), 2013, p. 331-364.
- Kuster Claudia 외 4인, "Gaze Correction for Home Video Conferencing" in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31(6), 2012, p. 1-6.
- Kononenko Daniil, Lempitsky Victor, "Learning to look up: Realtime monocular gaze correction using machine learning", *2014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Boston, MA, 2015, p. 4667-4675.

[국문초록]

이 글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화상강의로 진행된 2020학년도 1학기 글쓰기 강좌를 이수한 홍익대 학생과 교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글쓰기 과목의 원격강의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응책을 살펴본 것이다. 화상강의에서 학생들과 교강사들은 공통적으로 토론수업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고 응답했다. 교강사들은 카메라를 켜지 않는 학생들로 힘들어했고, 학생들은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진행된 화상토론의 효율성을 의심했다. 현재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수강생이 많은 글쓰기 강좌의 경우, 학생과 교강사 모두가 카메라를 켜고 수업해도 카메라의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아이컨택은 쉽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교강사나 학생들은 보는 주체가 아닌, 보여지는 객체에 머물게 된다. 이런 상황은 답이 없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다가가며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워가야 하는 토론수업에 결정적인 장애요소다. 작문실습의 경우, 원격수업에서는 대면수업에서보다 학생들 글의 편차가 적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온라인시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대부분의 교강사들은 2020년도 1학기에 과제로 시험을 대체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대학은 학생들에게 카메라 켜기 등 원격수업의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교강사들은 강의 중심의 수업보다 학생활동 중심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교강사들은 발표나 토론, 작문의 주제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것으로 선정하고, 영상물이나 유튜브, PDF 자료를 골고루 활용하며, 작문실습은 학생들이 남의 글을 베낄 수 없도록 자기서사쓰기와 같은 성찰적 글쓰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온라인시험은 주제만 주고, 자료검색과 선택, 작문과 주석달기까지 글쓰기의 전 과정을 학생이 직접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원격강의가 더 효과적인 문장법,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법 등은 교강사들이 함께 원격강의에 적합한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공유하는 것이 좋다. 글쓰기 교육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함양과 창의적인 글쓰기 역량의 강화가 목표이므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강사 간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이컨택이 가능한 웹 기반 교육환경의 확보가 원격강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교강사와 학생, 학교가 원격화상수업의 특징을

올바로 이해하고 다른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고자 함께 노력할 때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Research on the Problems of the Smart Device-based Distance Instruction in college writing classes : using surveyed data from Hongik university students & instructors

Kim, Mee Young (Hongik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find methods to efficiently implement smart-device-based distance instruction in college writing classes to prepare for education during future pandemics like COVID-19.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nalysing Google survey of 122 Hongik University students & 19 Hongik University professors who teach korean writing, near the end of the first semester in 2020, concerning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in smart device-based distance instruction in college writing classes. Students and professors responded similarly that the most difficult part of college writing classes was the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and instructor such as debates, discussions, question-and- answer sessions after presentations for making sure of the writing contents. It was found that most of students attending classes did not turn on their cameras. Accordingly, in future smart device-based distance instruction, the university should implement the policy that students must turn on the cameras during class. In addition, it was reported that even when students turned on their cameras in class, the eyes of the instructors and students could not make exact contact, a problem that could be solved technically through improvements of digital academic environments. And the compositions of students during smart device-based distance instruction were more similar than those of face-to-face writing classes. Students thus appeared to have shared their compositions using such digital devices as smart phones. It is necessary for the professor to offer introspective writing subjects for students in order to reduce the sharing their compositions. On the other hands, to relieve instructor's stress during smart-device-based distance instruction in college writing classes, universities should certify student accounts to ensure that the PC screens for students differ from the instructor's. The last thing is the problem related the evaluation of student's grade. In smart device-based distance i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readjust distribution of grades

more generous than the face-to-face lecture's.

【Keywords】 COVID-19, Smart Device-based Distance Instruction, Writing class,
Eye contact, Google survey.

논문투고일: 2020.11.15 / 논문심사일: 2020.11.25 / 게재확정일: 2020.12.22.

【저자연락처】 peace6539@hanmail.net

【부록1】 학생용 설문지

1.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되어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서버다운 등 접속의 불안정성으로 수업이 불안정함.
-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플랫폼 조작 미숙으로 수업 시간 중에 혼란을 겪음.
- 화면이 저화질이라서 판서 등이 잘 안 보임.
- 교수님이나 동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끊어짐.
- 시험 대체 과제물이 많아짐.
- 토론수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음.

2. 대학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되어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 동영상, ppt, e-book, 판서 등의 다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점.
- 대면 수업에서 나서기를 꺼려했던 학생도 원격강의에서는 목소리만으로 토론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됨.
- 등하교 시간을 벌 수 있고, 복장 등에서 부담이 줄어들음.
- 교수님이 수업 이외의 잡담을 하지 않음.
- 시험이 과제물로 많이 대체됨.

3. 대학의 글쓰기 수업에서 어떤 부분이 원격화로 인한 효과가 적은 편일까요?

- 독해 연습
- 발표와 토론
- 어문규정이나 문장법 습득
- 글의 양식에 대한 이해
- 주석 달기와 참고문헌란 작성법
- 작문실습과 피드백

4. 대학의 글쓰기 수업에서 원격화해도 수업 효과 면에서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 어문규정이나 문장법 습득
- 글의 양식에 대한 이해
- 주석 달기와 참고문헌란 작성법
- 발표와 토론
- 독해 연습
- 작문실습과 피드백

5. 원격화된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성적의 공정성은 어떻게 해야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글쓰기 시험은 온라인 상태에서도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 온라인 시험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시험을 과제로 대체해야 한다.
- 원격강의에서의 성적은 시험 없이, 출석, 수업 시간 중 활동(발표나 토론, 작문실습 등)과 과제를 종합해서 산출한다.

6.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 강의를 원격화로 진행된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존의 방식인 A학점 30% 이내, A+B 학점 70% 이내, C학점 이하 30% 이상으로 상대평가 한다.
- A학점 40% 이내, A+B 학점 80% 이내, C학점 이하 20% 이상으로 상대평가 한다.
- A학점만 4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교수 재량으로 맡긴다.
- A학점만 50% 이내, A+B 학점 80% 이내, 나머지는 교수 재량으로 상대평가 하게 한다.
- 절대평가 한다.

【부록2】 교강사용 설문지

1.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원격화되어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원격강의에 따른 장비들의 사용법 혹은 조작법에 대한 사전 교육 미비.
- 서버다운 등 접속의 불안정성으로 수업이 불안정함.
- 발표수업 시 학생들이 플랫폼 조작 미숙으로 수업 시간 중에 우왕좌왕하는 등 혼란을 겪음.
- 수업 중 교강사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끊어지고, 판서 등이 잘 안 보인다는 학생들의 항의가 빈번함.
- 토론수업 등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음.
- 교수자로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음.
-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을 교강사가 확인할 수 없음.

2. 코로나19로 인해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수업이 원격화되어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토론 수업 등,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강사 간 상호작용이 쉽지 않음.
- 시험이 과제로 대체됨으로써 채점해야 하는 과제물의 양이 많아짐.
- 교재의 미배포로 수업하기가 쉽지 않음.
- 학생들이 카메라나 마이크 켜기를 꺼려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체크되지 않음.
- 출석 체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각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음.
- ppt, 한글파일, pdf 파일, 동영상 등, 다매체의 수업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 교강사가 학생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채, 카메라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수업해야 하는 어려움.

3. <논사글> 수업이 원격화로 진행되어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복수 응답 가능)

- 동영상, ppt, e-book, 판서 등을 다매체를 자유롭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점.
- 대면 수업 시 나서기를 꺼려했던 학생도 원격강의에서는 목소리만으로 토론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토론수업에 더욱 활발해짐.
- 등학교 시간을 벌 수 있고, 복장 등에서 부담이 줄어들.
- 수업 내용 외의 잡담을 하지 않음으로서 동일한 시수에 더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음.
- 시험을 과제로 대체함으로써 시험문제 출제의 부담이 줄어들.

4. <논사글> 강좌가 원격화되어 특히 수업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독해 연습
- 발표와 토론
- 어문규정이나 문장법
- 글의 양식에 대한 이해
- 작문 실습과 그 피드백
- 조별(모둠별)활동

5. <논사글> 강좌가 원격화되어 수업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독해 연습
- 발표와 토론
- 어문규정이나 문장법
- 글의 양식에 대한 이해
- 작문 실습과 그 피드백
- 주석과 참고문헌란 작성법

6. 원격화된 <논사글> 강의에서 성적의 공정성은 어떻게 해야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하나만 체크해 주십시오

- 글쓰기 시험은 온라인 상태에서도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 온라인 시험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시험을 과제로 대체해야 한다.
- 원격강의에서는 시험은 생략하고, 성적은 출석이나 수업 시간 중에 한 활동(발표나 토론, 작문실습 등)과 과제를 종합해서 산출해야 한다.

7. 원격화로 진행된 <논사글> 과목의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하나만 체크해 주십시오

- 기존의 방식인 A학점 30% 이내, A+B 학점 70% 이내, C학점 이하 30% 이상으로 상대평가 한다.
- A학점 40% 이내, A+B 학점 80% 이내, C학점 이하 20% 이상으로 상대평가 한다.
- A+B 학점 80%, C학점 이하 20%로 상대평가 한다.
- A학점만 5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교수 재량으로 상대평가 한다.
- 절대평가 한다.

8. 대학 원격강의로 인한 교강사의 고충 해소나 원격강의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에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9. <논사글> 수업의 원격화로 인한 교강사의 고충 해소나 논사글 수업의 질 제고,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방법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